

교단 신학교 운영 방안 마련 모색

한기총 ‘고등교육법’ ‘정치’ 주제로 제3회 신학포럼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제3회 신학포럼이 지난 1월 12일(목)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열려 고등교육법과 정치에 대한 발제에서 교단 신학교를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학교와 고등교육법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백만기 목사(국제기독교신학교육기관협의회 부회장)는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으니, 한기총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앙인의 정치참여, 목회자의 정치참여’



를 주제로 발제한 이흥선 목사(종신대 평생교육원 교수)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조망하며, 권세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오직 ‘기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각 교단 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공통 화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한기총에 제안해주시고, 발전

을 이뤄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 문제를 정치 문제로 치부하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가 없지 않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신학과 정치’에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웃 없는 명절이 되도록”

월드비전, 설 명절 ‘사랑의 도시락’ 특식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설날을 맞아 지난 1월 16일(월)부터 결식우려아동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을 대상으로 ‘설날 특식’을 지원했다. 설날 특식은 월드비전 ‘사랑의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락 지원이 중

단되는 연휴기간에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비전 설날 특식은 도시락 담당 사회복지사와 영양사, 조리사가 지역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과일, 육류, 꽃감, 약과 등으로 구성했다. 7개의 월드비전 사랑의도시락 사업장을 통해 총 1,143명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월드비전의 ‘사랑의 도시락’ 사업은 현실적 여건으로 하루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주 5일, 1식 3찬의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는 결식아동지원사업이다.

월드비전은 지난 2000년부터 22년 동안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성연, 2023년 신년하례회

국내 성결교회 3개 교단, 화합과 결속 다져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신현파 목사)는 지난 1월 10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 마포 롯데시티호텔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신년하례회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성 총무 이강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1부 예배에서는 나성 부총회장 장순필 장로의 기도와 예성 부총회장 조일구 목사의 성경봉독 후 대표회장 신현파 목사가 ‘우리의 꿈(창 28:10~15)’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기성 총회장 김주현 목사의 새해인사가 있었고 나성 감독 윤문기 목사가 신년 덕담 순서를 맡았다. 또 2부 순서로 진행된



하례회에서는 기성, 나성, 예성 순으로 각 교단 총무들이 임원 및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3부 조찬시간에는 예성 부총회장 천민우 장로가 조찬기도

를 했다. 매년 신년하례회를 갖고 있는 한성연은 국내 성결교회 교단 간 교제와 연합활동 등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역사교사 초청해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진행

한교총-미션네트워크, ‘우리에게 근대문화는 어떻게 왔을까?’ 주제로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미션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1월 16일부터 3일간 전문인 초청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일간지 기자단 초청 답사에 이어 ‘중등 역사 교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이번 답사는 “우리에게 근대문화는 어떻게 왔을까?”라는 주제 아래 16일 서울 새문안교회와 정

동교회를 시작으로 화성 제암리와 마량진 성경도래지, 전주와 광주, 대구를 돌아보는 일정이다.

1885년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 설립된 최초의 교회를 방문하여 교육, 의료, 구제, 복지, 문화 및 독립운동과 근현대사에 기여한 기독교 역사문화를 돌아보

고 경기도 충청 지역 3.1운동 순국유적지인 제암리와 최초의 성경전래지로서 전지판이 있는 마량진을 답사하여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전국에 산재한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 전국 최대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호남의 대표적 기독교 성지인 전주와 광주를 방문하여 근대 기독교 사적지와 선교사 묘원, 기념관과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동서를 가로질러 영남의 기독교 중심지인 대구를 방문해 근대 의료 기술과 계몽에 앞장선 기독교의 사적과 다양한 활동상을 살펴보았다.

이번 답사에는 한교총에서 신명식 사무총장과 이상택 국장이 동행했으며, 새문안교회 원로장로 서원석 장로와 제암교회 강신범 원로목사, 마량진 성경전래지 이병무 관장, 전주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임기훈 학예사가 참여하여 가이드했다.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 최우수상 등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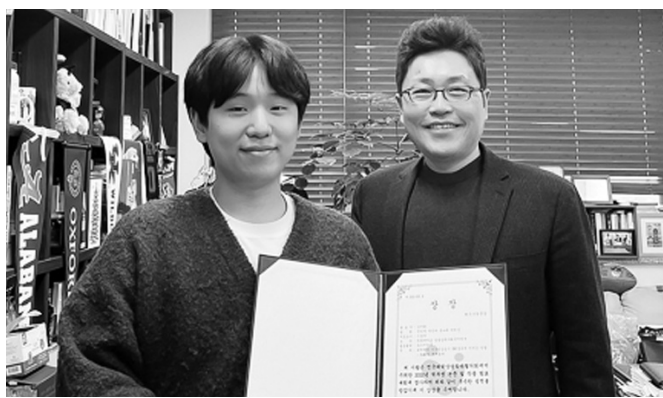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대회서,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한동대학교(최도성 총장)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소속 2개의 팀이 2022년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회원학과 학부생들의 전문성 함양 및 우수한 사례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학부생 대상 논문 및 작품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한동대 팀(김진희, 전민택, 박진하, 유나래, 박희강)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 최우수상 수상 및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한동대 팀(정건, 이정은, 옥제남, 방주안, 유신애)은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경험 회피의 매개효과’라는 제목의 논



문을 작성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동대학교는 상담심리전공과 사회복지전공을 아우르는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현장실습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고 사회의 시각지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STU캠퍼스 전도목사파송협약식 진행

서울신학대학교와 삼광교회 업무협약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는 지난 1월 19일(목)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처-삼광교회

STU캠퍼스 전도목사 파송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처(정병식 교목처장)와 삼광교회

(심요한 목사)간의 협약식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교목처 김해란 과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병식 교목처장의 내빈소개 및 협약개요 설명, 삼광교회 심요한 목사의 인사,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의 인사말,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열렸다. 삼광교회는 1987년 7월 4일에 시작했으며 ‘주님을 본받는 교회(성도)가 되고, 믿는 자의 분이 되는 교회(성도)가 되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성도)가 되자’는 존재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구원에 생명을 건 주님의 제자가 되기위해 복음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1면에서 이어짐

더불어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확립해 국가 재건을 추진하고, 이의균점제라는 사회주의 요소를 폐지하고자 했다. 또 정부가 입법·예산권을 장악해 의회 권한을 약화시켰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해 장기집권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박정희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박명수 교수는 “박정희는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박정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준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한다”며 “박정희는 이렇듯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했다”고 했다.

박명수 교수는 “박정희는 안보와 부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체제이므로 한국식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유신 체제”라며 “이런 박정희의 민주정치 왜곡은 분명한 비판의 대상이다. 박정희는 절대자가 그에게 맡겨 준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역할을 마쳤을 때, 태의로 물러났다. 그는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박정희는 공간적으로 해양 정책, 시간적으로 근대와 정책을 실행했다. 그는 한일조약을 통해 일본과 다시 교류하고, 월남·중동을 통해 해양 세력과 손잡고 해양 제국으로 발전했다”며 “이승만이 수입을 금지하고 자급경제를 하려 했

다면, 박정희는 수출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를 이룩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한 반도의 공간적·시간적 상황을 잘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시기는 박정희와 한반도에는 축복이었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을 상대로 엄청난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기독교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시대 기독교는 전국 신지화운동, 경목제도, 국가조찬기도회, 기독교 지원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면에서 국가종교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며 “박정희는 진보적인 기독교와는 적대관계를, 복음주의 기독교와는 우호관계를 맺었다. 박정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안보에 있어, 한국 기독교는 가장 큰 우군이었던”고 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병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정희는 한국 사회에 경제발전과 자유시장을 가져왔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진 못했다”며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박정희에게 부족했던 자유민주주의 의식이다. 한국 기독교는 진정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 민주적 행동을 함으로써, 박정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리더십과 한국교회 역할”을 제목으로 박홍일 장로는 “윤석열 리더십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국민주권 정신이다. 또 정치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서방 외교를 주축 삼되 북·중·러 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라며 “직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중국 인민사회주의 공산사회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정

책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공산과 과정이 중단돼 천만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박홍일 장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의 법치주의가 모든 통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 위주 산업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경제 성장과 소득 재분배 정책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등과 평등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기회균등 정책, 균형적 사회복지 정책을, 문화적으로는 종교와 정신문화를 존중하고 K-컬처 등 대중문화와 활성화 정책을 각각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의 정치·경제 역경에 대처하는 경제회복 및 민생 생활안정, 장기간 코로나 당면 과제에 대한 과감하고 행방한 정치·경제·사회적 대처와 처방 등 현 위기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윤석열 리더십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안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개혁과제인 노동·교육·연금·건보 등에 대해 노조 등 저항상대와 대다수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수용하게 하느냐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는 각 정부가 구호에만 그치고 계속 미뤄온 국가적 난제”라고 우려했다.

박 장로는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한 활동 강화, 일환으로 예산지적·선지지적 고언과 직언을 하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지지할 것은 적극 지지하면서 신앙과 예배 자유 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건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투쟁 확보도 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평화통일 협력 분위기 조성과 북한선교 및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노력하며, 북한 및 북방선교가 아시아·세계 선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해 단 목사

· 김포지방 전임회장
· 김포샘물교회

바울이 기록교 이전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사도요 전도자이며 복음 선포자이고 목회자였음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2장을 통해 제시된 '복음과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2:5)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음은 비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주신 자유를 잊고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비전리와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전리와 타협하지 말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교회에도 비전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는 사단이 뿌려둔 배도의 씨앗입니다. 그들의 수장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근본주의자가 가지는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 했습니다. 2014.6.12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창조, 기록론, 구원론, 종말론을 다 무시하려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 제시된 복음에 진정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누군지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2:16)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 외식함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비록 대선배요 사도인 베드로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악화 훼손하는 여한한 시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한 길일뿐’이라는 주장에 많은 이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절절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 강했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이 기록교 이전년 역사에도 도하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자적 없이 이삭 앞에 선 아홉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오직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애서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오직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즉 예수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못 박혔나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로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 받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형틀 그 절망의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던 그때의 성경 기록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의 단발마적 절규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하나님과 단절의 순간이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건 땀줄이 끊어진 태아와 방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땀줄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도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나의 못 박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신앙의 견고한 요새에 내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살이 있는 제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비전리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사도들과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으로, 자신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르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바울의 삶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지 소원합니다.

도자들은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인간의 손으로 명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형상으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기록교에 관하여 기여할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교계 일각에서 로마 교황청을 본 따서 ‘기독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건물이나 기관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권력, 형상으로 신장(伸張)하거나 제한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뿐더러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이 되면, 전능자에게 영광될 수 없으니 그만두실 것을 경중히 권면(勸勉)한다.

동 정

충기총, 박종운 신임 대표회장



박종운 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26일 청주 서광교회(담임 박종운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박종운 목사를 추대했다. 박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올해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기도하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 변호사, 차별금지법 폐해 강조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가 지난 1월 30일(월) 사랑의교회 안성수광관에서 열린 2023 전국 지도자영성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문화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걸론 친절하게 들리며 평등을 말한다”며 “그러나 이 새로운 문화 공산주의는 어떠한 행동 양식과 동일해야 함을 강요한다”며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교시협 신임회장에 송준영 목사



송준영 목사

서울시교회와시협협의회(서울교시협) 신임회장에 송준영 성서교회 목사가 추대되었다. 서울교시협은 최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서울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신년기도회 및 제3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했다. 송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北인권보고, 北여아 인권 논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 1월 29일 한국을 찾아 3시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유엔 인권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북한 내 여성과 여아들의 인권 관련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세계에서 제일 큰 예수상을 왜 만든답니까?

최근 교계 일각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수상을 세운 예는 없다. 어느 교회에서든, 크든지 작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바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우상(偶像)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면서도 교리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

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기독교를 크게 알리고 기념비적인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복음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매우 기뻐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제왕을 내릴 것을 분명히 하셨다. 또 이미 모세오경 말씀을 통하여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4-5)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아담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왕하 9:6-9)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주(萬主)의 주가 되시며, 만왕(萬王)의 왕이시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의 상(像)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우상의 행위가 될 뿐이다. 이런 계획을 세운 단체와 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AG
ASSEMBLIES OF GOD



박정기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14
- T E L: 051)808-3927
- F A X: 051)6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박일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최정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김상용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3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www.thesancheong.com

“산청한방가족호텔로 크리스찬 성도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호텔은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향
노화엑스포(2023.9.15-10.19 개최 예정)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산청 유일의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5만평의 허준 동의보감 테마파크를 통해서 산, 숲, 계곡 그리고 무릉도 출렁다리와 다양한 산청의 전통한방, 명상 및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체험과 약선 음식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호텔은 108실의 다양한 객실 뿐만 아니라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과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주관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연회장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쾌적한 시설속에서 크리스찬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호텔 설립이후부터 다양한 기독교 행사 모임을 치러낸 경험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문의 055)972-7000 김성현 총괄이사 010-8388-6948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이용시 생초IC나 산청IC 하차 후 10분내 도착

MBC의 신성모독 가요방송 적합판정 규탄

한국교회법학회, ‘It’s OK to be me’ 방송불가 판정 나흘 만에 번복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한제 교수)가 ‘MBC의 신성모독 가요 방송 적합 판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찬양하는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에 대해 MBC가 방송 적합 판정을 한 것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MBC는 지상파 공영방송임을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MBC는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라이오네스 그룹의 신곡 ‘잇츠 오케이 투비미’ (It’s OK to be me) 방송 불가 판정을 나흘 만에 번복하여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조롱하는 행태이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폭자이다.

이 곡의 가사 중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Jesus’,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I glorify me’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구세주 예수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승화시키는 내용으로 기독교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다. 동성애자 두 명과 성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한 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이 특히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이 노래를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이 노래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Jesus를 직접 비하



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적그리스도’, ‘악령’의 계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곡이다. 이는 교회의 문제점을 공격하던 기존의 반기독교와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노래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지닌 노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MBC의 태도이다.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되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조정하여야 하는 아니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MBC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특정 종교를 편향하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과연, MBC는 불교와 이슬람교를 조롱하

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노래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에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한국교회법학회는 1천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신성모독과 동성애를 찬양하는 ‘잇츠 오케이 투 비 미(It’s OK to be me)’ 방송 적합 판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 노래가 지상파 방송으로 퍼져나갈 경우, 1천만 한국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MBC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3. 1. 17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한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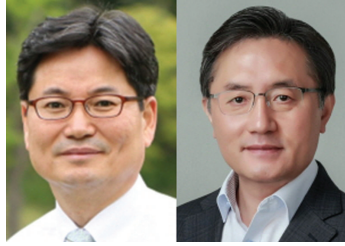
2023 전국 지역교회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세미나 열린다

2월 16일 부산 포도원교회 시작, 전북, 경남, 대구, 경북에서 개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주최, 지역 목회자와 세무전문가 및 회계책임자 초청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의 세무재정 전문 협력단체로 활동 중인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세무사·목사, 이하 한세연)이 오는 2월 16일 오후 2시,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를 시작으로, 2월 21일 전북 전주 새소망교회, 2월 28일 경남 김해중앙교회, 3월 7일 대구 동신교회, 3월 14일 경북 포항 기쁜교회에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세무전문가 및 회계책임자를 초청한 가운데 ‘2023 전국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2023 전국 지역교회를 위한 세무·회계·재정 순회세미나는 한세연 공동대표이며 한교총 종교인과 세대응원위원회 전문위원인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27가지 핵심 주제로 3시간 집중세미나와 30분간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 개정, 그리고 공익법인으로서 교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강의할 하며, 이상복 세무사(목사)는 교회 부동산 관리(취득, 보유, 양도)와 세금, 담임목사(부교역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 세무조사 대비에 대해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김영근 회계사와 이상복 세무사 외 3인이 공동 편찬한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이 주교제이다.



본 세미나는 지역마다 목회자와 세무 전문가와 회계책임자 등 300명을 선착순 접수하여 열리며 강의안은 무료로 배부되며 주교제인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 법과 정관』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창립 전부터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며 교단과 교회를 상담·지원했으며, 2021년 6월에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연합기관과 교단과 교회의 세무 재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단체로 발족하면서 기독교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겨왔다.

참가등록 :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세미나 준비위
총무 양영태 목사 : 010-2496-6228
박규민 이사 : 010-8011-8028
전화 등록 : 02-532-0591

설날 맞아 쪽방촌 떡국 사랑 잔치 펼쳐

월드뷰티핸즈, 선물전달식도 가져

쪽방촌과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을 섬기는 (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장한일)는 지난 1월 18일(수)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노인대학강당에서 해돋는마을과 엘드림

노인대학(학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이 함께한 ‘설날 어르신 사랑의 떡국잔치와 선물전달식’에는 생활이 어

려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 따뜻한 한 끼의 떡국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로대학원 13기 회장인 박동현 장로와 후원자를 대표한 송원 부사장(국도화학)은 인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독거어르신 모두 함께하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장로대학원 총무 박학제 장로와 회계 윤동원 장로를 비롯해 최에스터 교수(학장), 장민혁 사

무총장(월드뷰티핸즈), 최세연 국장(해돋는마을), 구훈 자원봉사단장(신생명나무교회)이 함께 했으며, 사랑밭과 디딤돌사랑방(염규영 장로)이 협력했다.

한편 (사)월드뷰티핸즈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과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와 함께 고독사제로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으며, 엘드림노인대학을 통해 매주 6회 밥과 지역과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다양한 강의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쇄성물집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압축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화계보고)

3)타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겔라틴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리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임창남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에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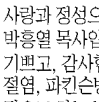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거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용으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읍면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KWMA, 33회 정기총회 개최

‘2023 NCOWE VIII’ 철저한 준비 다짐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정기총회를 열고, 선교비전 축제인 ‘2023 NCOWE VIII’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화) 사랑의교회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단체의 활동에 기반을 다졌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여백 목사(주시랑선교회)의 인도로, 여주봉 목사(포도나무교회)가 기도하고, 신하석 목사(안디옥성결교회)가 마태복음 4:1~11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에게 이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를 개최하며 인사말을 전한 이사장 이수영 목사는 “위기의 시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하나님

이 계획하신 은혜를 믿으며 주어진 사역에 더욱 정진하자”고 인사했다.

먼저 KWMA는 오는 6월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3 NCOWE VIII’ 준비에 관해 한철호 목사가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NCOWE에서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선교와 기록’,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남겨진 과제, 발견할 과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기로 했음을 알렸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KWMA는 회무를 진행하며 정기총회를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있던 조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정관을 일부 조정했다.



지미션, 홀사모 후원 캠페인 시작

생계비와 심방비, 모임비 등 지원 할 예정

사단법인 지미션(대표 박종관)은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홀로 동역자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홀사모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미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홀사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심방비, 모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홀사모 후원 캠페인 참여는 지미션 홈페이지(www.gmission.or.kr)를 통해 가능하다.

지미션 박종관 대표는 “홀사모는 배우자를 잃은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홀로 동역자들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교회나 소속 교단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낮은 임금과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남은 동역자와

사역들을 책임져야 하는 홀사모에게 지원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기때문에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통합 총회의 ‘2022년 목회자유가족협의회 회원실태보고’에 따르면 목회자 유가족에게 사별 후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120명 중 80%가 경제 문제를 꼽았고 이외에도 자녀 양육, 정서 문제,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지미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로 해외 선교사, 위기목회자 후원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보육원 등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 02-6334-0303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도행전은 단순한 지난 일의 기록과 흔적이 아닙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으로 시선을 돌리면 반드시 마주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날의 현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의 120분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손길에 저희 군우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구세군교회(노매실교회)에 박영수 목사가 방문했습니다. 집회 중에 세미나와 성령집회를 통해 치유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이롭고 감격적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박영수 목사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틀래면 “과거 전도사 시절 치유사역에 집중하였던 목사 안수 후에는 주로 말씀사역에 집중하던 차 최근 들어 주의 감동과 지시를 통해 치유사역에 힘쓰시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목사의 말씀 선포와 동시에 믿음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고질병인 허리통증으로 힘들어 하던 성도들이 치유를 받았습

니다. 또한 가정단 재부는 3년 전부터 앓고 있던 귀의 이명과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분도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대에도 주님의 말씀은 실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감 있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의 역사를 통해 정말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저희 군우들과 더불어 확신에 찬 고백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노매실구세군교회

담임사관 김효영 목사, 채미숙 사관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031592-1691, 0103730-2573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이어주세요”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후원금 전달식 대구 경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8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탁)는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대구 달서구 경화여자고등학교(이하 경화여고, 학교장 이성국) 1학년 8반 학생들이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를 위한 장학금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학생들은 지난해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모금활동도 병행해 해당 후원금을 마련했다.

“장기기증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진학을 앞둔 전지민 양은 지난해 1학년 8반의 반장을 맡아 한 학기동안 학급특색활동의 일환으로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도하며 생명나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 양과 같은 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당신의 마지막 선행이 누군기를 살립니다.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교내와 인근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 활동과 함께 장기기증 홍보 활동을 펼쳤다.



본부 대구·경북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전 양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크게 줄었다는 기사를 접한 후,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비쁜 학업일정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 준 친구들의 마음이 4만 명이 넘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전해져 용기를 드렸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남겼다.

덧붙여 전달하는 후원금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기증인의 유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자신들과 같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유자녀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6만 8,418명 중 20세 미만의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6,300여 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9%를 차지해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운동 참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모퉁이돌선교회, 제66회 선교 컨퍼런스 개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제로

북평 땅 선교 비전을 위해 앞장서는 모퉁이돌선교회는 2023 새해를 맞아 제66회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선교 컨퍼런스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주제로 열렸다.

컨퍼런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탈북민 대한교회인 겨레얼학교 교장으로 헌신하고 있는 순영옥 선생의 간증과, 이반석 목사가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확정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살아있는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또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한 교회 역사를 배우고

사명을 되새김하게 해 줄 박영수 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아울러 컨퍼런스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견뎌 왔던 한 사역자로부터 필박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실제로 선교전력을 계획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미네랄이 풍부한 신안군비금도천일염판매

20kg

40,000원(택배비포함)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선교회·기관 다량구매 010-3000-7602 연락바랍니다

Copyright © Doosa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만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어린이와 장난감가게 주인



어느 날 6살 남자아이와 4살 여동생이 상점에 왔습니다. 남자아이는 동생이 따라오지 않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동생은 장난감 진열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되돌아가서 물었습니다. “뭐 갖고 싶은 것 있어?”

여동생은 인형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그 인형을 내려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여동생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웃는 얼굴로 이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상점 주인에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인형 얼마예요?”

“달걀다. 얼마를 줄 수 있나?”

남자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조개껍데기를 한웅큼 꺼내서 주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내민 조개껍데기를 받아서 돈을 세는 것처럼 세더니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충분한가요?”

상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충분하고도 남는데.” 주인은 조개껍데기 4개를 빼고 나머지는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면서 조개껍데기를 돌려받고는 인형을 받아들고서 여동생과 함께 가게를 떠났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점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비싼 인형을 고작 조개껍데기 4개를 받고 주시다니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개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저 아이한테는 소중한거야. 저 나이에 돈은 모르지. 크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말이야. 아이는 언젠가 기억할 거야. 조개껍데기를 주고 인형 산 것을 그리고 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겠지.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것은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픈 동기를 부여할 거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능히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의 교회 권사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

숨 쉬고 있는 지금...

반복되는 이름을 맘속에 녹이며

고통의 의미를 견져내고 있습니다.

오래 전...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에도 잠잠 하셨던 주님

수치와 모욕, 채찍과 죽음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의미를 몸소 보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런 시간 속에서

녹아진 내 영혼...

어둡고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

빛나고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못 박힌 주님의 손이 보입니다.

오래 전...

깊고 깊은 마음 속에서

오늘을 준비하시며 나를 기다리신 주님...

죽음보다 더 진한 십자가 예수님 사랑

여기... 여기 계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밤에...

심한 편두통으로 시달리던

구역식구를 위해 기도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며 쓴 글.

사설

세상을 이긴 이김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연히 높아졌다. 전 세계 195개 국가중 191개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인가? 아니다. 아직도 개혁하고 개선하고 수정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다.

최근 민노총의 조직국장과 일단의 민간인이 북한의 문화교류류의 간부를 만나서 교육을 받고 지령을 받은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 공산당 입당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지 왜 남한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북한이 어떤 곳인 줄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지금 히 판함된 사고 때문일까? 매우 궁금하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던 강원도 평창의 이승복 여인 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그들은 모를까? 반공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침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 말을 잊었을까? 김정은은 최근 ‘남한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했다. 적과 동침하는 자는 적이다. 적과 내통하는 자도 적이다. 적을 이렇게 하는 자도 적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적의 선전전에 동참하는 것도 적이다.

김정은은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면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도 본재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퇴임 직전까지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선의로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22년 한해엔 최다인 70발의 탄도 미사일로 도발을 했다. 12월 31일에는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다. 김정은은 스스로 말하기를 ‘초대형 방사포’라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했다.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600mm이고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한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같다.

김정은은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왜일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다. 핵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면 원자료를 더 짓거나, 원심분리기를 추가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엄격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란 뒷배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미·인도 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즉시 공유하는 방안으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더 진전된 군사협력 방안이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사후에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다.

일본의 정보 능력은 미국 다음이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일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과거 칠없는 정권에서는 지소미아를 중단시키는 일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어차구니없는 짓을 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미 동맹도 우습게 생각한다.

한·미 동맹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체결된 것이다.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맺은 동맹이다.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실은 동맹이었다. 최강과 최약의 동맹. 강자가 뭐가 아쉬워서 했을까? 그러나 이승만의 외교력으로 한 것이다. 매우 가치가 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 억제에 인해서 70년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것이다.

한·미동맹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2차 대전 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중의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칠없는 일부 좌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민노총의 일부 불지각한 좌파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이 1순위로 이유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아내와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미군 철수인가? 누구를 위한 정권 타도인가? 간첩을 잡는 일이 어떻게 공안 정국이라는 말인가? 여전히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든지. 탈북민 3만 3천명(실거주자 2만 7천명)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위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로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대하 6:30)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연합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게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이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회차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 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수시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30,000원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서 및 성적증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호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로도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